

p. 4

## 호두까기 인형

차이코프스키의 1892년 발레 작품으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성공에 힘입어 탄생하게 되었다. 2막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독일 출신 문호 E.T.A. 호프만의 작품 〈호두까기 인형과 쥐의 왕〉을 변안한 것이다.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배경이다. 스탈바움 씨 저택은 크리스마스 준비로 한창이다. 스탈바움 씨의 딸 클라라는 대부인 드로셀마이어 씨에게서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로 받는다. 말쑥꾸러기 남자아이들이 장난삼아 이 인형을 던지고 놀다가 두 동강이 나고 만다. 클라라가 크게 실망하자 드로셀마이어 씨가 인형을 고쳐 준다. 클라라는 이 인형을 고이 안고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잠이 드는데...

크리스마스 때면 어김없이 무대에 오르는 이 발레 작품은, 특히 음악이 아름다워 발레 중에도 나오는 춤곡, 행진곡 등 8곡을 추린 모음곡만 연주되기도 한다.

p. 5

## 백조의 호수

1876년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발레 작품으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고전발레의 3대 명작으로 손꼽힌다. 총 4막으로 이루어진 이 시나리오의 러시아의 백조 처녀에 대한 민담을 각색해서 만들어졌다.

이야기는 지그프리드 왕자의 생일축하연에서부터 시작한다. 결혼을 종용하는 어머니로 인해 답답함을 느낀 왕자는 왕궁을 떠나 어느 숲으로 향한다. 깊은 숲 속에 있는 호수에서 아름다운 백조 무리를 보게 되는데, 그 중 왕관을 쓴 백조 한 마리가 유독 눈길을 끈다. 밤이 되자 이 백조들이 아름다운 처녀들로 변하고, 왕관을 쓴 백조가 오데트 공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공주에게 첫눈에 사랑에 빠진 지그프리드 왕자는 마법에 걸린 처녀들의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작품으로, 볼쇼이 발레단의 청탁으로

제작되었으나 초연 때는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상연 횟수가 가장 많은 작품 가운데 하나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 호두까기 인형

### [제1장] 크리스마스 선물

p. 12-13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스타바움 씨 가족은 신이 났다. 그들은 매년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클라라는 상냥한 딸이었다. 프리츠는 활기 넘치는 아들이었다. 모두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다. 그것은 그들의 거실에 서 있었다. 그것은 키가 컸고 웅장했다. 저녁이 왔다. 부모님의 친구들이 도착했다. 아이들의 친구들도 왔다. 먹을 것이 많았다. 놀거리들이 있었다. 그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

p. 14-15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다. 그는 클라라와 프리츠의 대부였다. 그의 이름은 드로셀마이어였다.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했다.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는 시계와 장난감을 만들었다. 그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 매년 그는 특별한 선물을 만들었다. 올해 그는 큰 인형 두 개를 만들었다. 그들의 얼굴은 밝게 칠해졌다. 드로셀마이어는 그것들을 춤추게 만들었다. 모두가 놀랐다. 드로셀마이어는 선물을 더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주었다. 소녀들은 아름다운 중국 인형을 받았다. 소년들은 소리가 큰 장난감 트럼펫을 받았다.

p. 16-17 드로셀마이어는 몇 개의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들은 자신의 대자녀를 위한 것이었다. 프리츠는 장난감 드럼을 가졌다. 드로셀마이어는 클라라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최고로 좋은 것이었다. 그것은 장난감 병정 같이 생겼다. 그것은 빛나는 빨간 제복을 입고 있었다. 높고 검은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있었다. 그것은 허리에 장난감 검을 차고 있었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그것은 견과를 깨 수 있었다. 클라라는 그것의 입 안에 호두를 넣었다. 그녀는 입을 눌러서 닫았다. 짹! 호두가 부서져 열렸다.

p. 18-19 아이들 모두가 놀랐다. 하지만 프리츠는 샘이 났다. 그는 호두까기 인형을 움켜잡았다. 그는 그것을 친구들 중 한 명에게 던졌다. 소년들이 웃었다. 그것은 새로운 놀이였다. 클라라는 한 소년에서 다른 소년에게로 뛰어다녔다. 소년들마다 호두까기 인형을 던졌다. 또 다른 소년이 그것을 잡았다. 마침내 일이 벌어졌다. 한 소년이 잡지 못하고 놓친 것이었다. 호두까기 인형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끔찍하게 부서졌다. 호두까기 인형이 두 동강이 났다!

p. 20-21 아이들 모두 동작을 멈췄다. 클라라는 울기 시작했다. 드로셀마이어가 돌아보았다. “아, 여기 무슨 일이 있었니? 울지 마, 사랑스런 클라라.” 그 노인은 손을 흔들었다. 작은 천 한 장이 나타났다. 드로셀마이어는 인형을 집어 들었다. 그는 그것을 천으로 덮었다. 그는 그것을 밀었다. 그는 그것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나서 그는 천을 치웠다. 호두까기 인형은 고쳐졌다. 클라라는 기뻐서 팔짝 뛰었다. 그녀는 손뼉을 쳤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p. 22-23 그 노인은 작은 침대를 만들었다. 그는 그것을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았다. 그는 그것 위에 호두까기 인형을 놓았다. 많은 장난감 병정들이 근처에 있었다. 시간이 늦어졌다. 모두들 피

곤했다. 손님들은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탈바움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클라라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났다. 그녀는 트리가 있는 곳에 갔다. 그녀는 호두까기 인형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트리 아래에 누웠다. 호두까기 인형은 그녀의 팔에 안겨 있었다. “난 다시는 널 잃고 싶지 않아.” 클라라는 잠이 들었다.

## [ 제 2 장 ] 모험이 시작되다

**p. 26-27** 클라라의 집에는 시계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큰 시계였다. 그것에는 종이 있었다. 자정이 되었다. 종이 울렸다. 그 소리는 클라라를 깨웠다. 그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모든 것이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녀가 작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호두까기 인형만큼 작았다. 장난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살아 있었다! 클라라는 검은 형제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점점 더 가까이 왔다. 그것들은 쥐였다.

**p. 28-29** 큰 대왕 쥐가 그들을 이끌었다. 그것들은 못돼 보였다. 호두까기 인형은 장난감 병정들에게 소리쳤다. “한 줄로 서라, 병사들! 준비하라!” 장난감 병정들은 명령을 따랐다. 병정들은 검을 뽑았다. 그들은 쥐들과 싸웠다. 호두까기 인형은 용감했다. 하지만 쥐들이 많았다. 클라라와 장난감들은 포위당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클라라는 필사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발을 움켜잡았다. 그녀는 대왕 쥐에게 그것을 던졌다. 그녀는 힘차게 던졌다. 그 신발은 대왕 쥐의 이마에 맞았다. 대왕 쥐는 뒤로 넘어졌다.

**p. 30-31** 호두까기 인형은 기회를 잡았다. 그는 대왕 쥐를 죽였다. 다른 쥐들은 싸움을 멈췄다. 쥐들은 자신들의 왕을 들어올렸다. 쥐들은 도망갔다. 싸움은 끝났다. 클라라와 호두까기 인형이 이겼다! “후유! 싸움이 끝나서 기뻐.” 클라라는 작은 침대로 갔다. 그것은 그녀에게 넉넉할 정도로 컸다. 그녀는 침대 위로 털썩 누웠다. 그것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썰매가 되었다! 클라라는 일어나 앉았다. 호두까기 인형이 앞쪽에 있었다. 그는 썰매를 끌고 있었다. 두 마리의 말이 그것을 끌었다.

**p. 32-33** 클라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은 숲 속에 있었다. 사방에 하얀 눈이 있었다. 클라라는 음악소리를 들었다. 눈송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땅에 닿았다. 그것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다. 클라라는 즐거웠다.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녀가 물었다. “사탕 나라로!” 호두까기 인형이 대답했다. 호두까기 인형은 말들이 더 빨리 달리게 했다.

## [ 제 3 장 ] 사탕 나라

**p. 36-34** 썰매는 숲을 벗어났다. 클라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방에 사탕이 있었다. 꽃들은 사탕이었다. 설타이 늘판에 펼쳐져 있었다. 산들조자 달콤해 보였다. 생크림이 산 정상에 덮여 있었다. 그것은 눈보다 더 하얗다. 한 요정이 그들을 맞았다. “나는 슈가 플럼 요정이야. 사탕 나라에 온 걸 환영해.” 클라라는 요정에게 대왕 쥐에 대해 얘기했다.

**p. 38-39** 요정은 감명받았다. “너는 매우 용감한 소녀구나. 호두까기 인형은 영웅이야! 우리는 파티를 열 거야.” 그들은 요정의 성으로 갔다. 모두가 그들 앞에서 절을 했다. 저녁식사가 나왔다. 맛있는 음식을 모두 떠올려 보라. 모두 거기에 있었다! 저녁식사 후에는 무도회가 열렸다. 찰찬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뜨거운 코코아가 컵 안에 있었다. 거대한 생강 쿠키 집이 나타났다. 그것은 덮개를 열었다.

**p. 40-41** 여덟 명의 생강 쿠키 아이들이 뛰어나왔다. 그들은 춤추며 돌아다녔다. 클라라는 웃었다. 그녀는 손뼉을 쳤다. 생강 쿠키 아이들은 춤을 마쳤다. 그들은 집 아래로 뛰어갔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은 떠났다. 조용했다. 클라라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다. 잘생긴 장교가 나타났다. 그는 슈가 플럼 요정에게 절을 했다. 그는 그녀에게 춤을 청했다. 그들의 춤은 아름다웠다. 음악은 멋졌다. 클라라는 매우 행복했다. 춤이 끝났다. 클라라와 호두까기 인형은 손뼉을 쳤다.

**p. 42-43** 모두가 그들 앞에 모였다. 그들 모두는 말했다. “고마워요! 우리는 당신들이 찾아와서 즐거웠어요.” 이제 갈 시간이었다. 클라라는 슬펐다. “난 이 모험이 끝나는 걸 원치 않아!” “끝나지 않을 거야.” 호두까기 인형이 말했다. “계속될 거야. 너에게 상상력만 있으면 돼.” 클라라는 갑자기 잠에서 깨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있었다. 호두까기 인형이 그녀의 팔에 안겨 있었다. 그것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 백조의 호수

### [제1장] 왕자의 생일

**p. 50-51** 지그프리드 왕자의 생일이었다. 그는 스물한 살이었다. 성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모든 사람이 축하하고 있었다. 젊은 여성들이 왕자에게 인사했다. 그들은 모두 그의 관심을 끌길 원했다. 왕비는 지그프리드를 보았다. 그녀는 지그프리드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활과 화살이었다. “아들아, 너는 이제 성인 남자야. 결혼에 대해 생각해야 한단다.” 지그프리드는 걱정이 되었다.

**p. 52-53** 지그프리드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았다. 독신남자는 자유로웠다. 독신남자는 책임이 없었다. 지그프리드는 떠나고 싶었다. 그는 활과 화살을 집었다. “사냥 가자.”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숲 속에서 사냥을 했다. 지그프리드는 달리기를 좋아했다. 그는 친구들보다 빠르게 달렸다. 곧, 그는 그들보다 훨씬 앞섰다. 그는 숲 속의 이쪽 지역은 몰랐다. 그는 나무들 사이로 노래 소리를 들었다.

**p. 54-55** “누가 노래하고 있지?” 지그프리드는 생각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아름다운 호수를 보았다. 물은 맑고 파랬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백조들이었다. 많고 많은 백조가 호수에서 헤엄을 쳤다. 백조의 깃털은 새하 다. 그것들은 햇빛에 밝게 빛났다. 그것들은 앞뒤로 왔다갔다했다. 그것들의 우아한 움직임은 춤을 추는 것 같았다.



p. 56-57 한 마리의 백조가 지그프리드의 관심을 끌었다. 그것은 다른 백조들보다 더 크고 아름다웠다. 그것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었다. 지그프리드는 놀랐다. 그는 이 백조 여왕에 대해 궁금해졌다. 갑자기 지그프리드의 친구들이 도착했다. “우리 왕자님이 길을 잃으신 줄 알았어요.” 그들이 말했다. “이곳은 어떤 곳이지요?” “굉장하지, 그렇지 않아?” 지그프리드가 대답했다. “날 두고 가.”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잠시 동안 여기에 머물고 싶구나.”

p. 58-59 그의 친구들은 떠났고 지그프리드는 홀로 있었다. 백조들을 보는 것은 그에게 평온함을 주었다. 그는 해방감을 느꼈고 살아 있는 것이 기뻐졌다. 저녁이 왔다. 해가 졌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백조들이 호숫가로 헤엄쳐왔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것들이 아름다운 여인들로 변한 것이었다! 한 여인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아까 그 백조여왕이었다. 이제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지그프리드는 사랑에 빠졌다.

p. 60-61 “당신은 누구요?” 그는 외쳤다. 그 여인은 그에게 왔다. “저는 오데트예요. 저는 마법에 걸렸어요.” 오데트가 설명했다. 낮 동안 그녀는 백조였다. 밤에 그녀는 다시 인간이 되었다. 젊은 여인들이 모두 그와 같았다. 마법이 그들을 변하게 했다. 그들은 모두 매우 슬펐다. 호수는 그들의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누가 이 마법을 만들었소?” 지그프리드가 물었다. “당신의 스승인 폰 로스바르트가요.” 오데트가 말했다. “그는 당신의 성에 살고 있어요. 그는 정말 사악한 마법사예요.”

p. 62-63 오데트는 지그프리드에게 마법을 푸는 방법을 말해 주었다. “한 남자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야 해요. 그 남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내가 할 수 있소.” 지그프리드가 말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났다. 폰 로스바르트가 도착했다. 그는 마법을 부렸다. 요란한 폭발이 있었다. 지그프리드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연기가 호수를 뒤덮었다. 폰 로스바르트가 오데트를 붙잡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인들에게 춤을 추도록 명령했다. 연기가 걷혔다. 지그프리드는 많은 여인들이 이 춤추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오데트를 볼 수 없었다.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그에게서 멀어져 갔다. 곧 그는 혼자 남게 되었다.

## [ 제 2 장 ] 사악한 변장

p. 66-67 그 다음날, 지그프리드는 초초했다. 그는 오데트만 생각났다. 그는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다. 왕비는 지그프리드가 결혼하길 원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파티를 열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초대되었다. 그것은 가장무도회였다. 모든 사람이 가면을 썼다. “내 아들이, 넌 신부를 골라야 해.” 지그프리드는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는 강요했다. “이 아름다운 여성들과 춤을 추렴. 만약 그 중 한 명이 마음에 들면, 그녀에게 가면을 벗으라고 해. 그럼 넌 신부를 선택할 수 있잖니.” 지그프리드는 춤을 추고 싶지 않았다.

p. 68-69 폰 로스바르트는 왕자를 보았다. 그는 자신의 딸을 불렀다. 그녀의 이름은 오달이었다. 폰 로스바르트는 그녀의 외모를 바꾸었다. 이제 그녀는 오데트와 거의 비슷해 보였다. 그녀는 지그프리드에게 갔다. 지그프리드는 놀랍고 기뻐졌다. 그는 오데트가 가면을 쓰고 있는 줄 알았다. “오데트, 어떻게 당신이...?” 그 여인은 춤추며 멀어져 갔다. 지그프리드는 따라가서 그녀와 춤을 추었다.

**p. 70-71** 진짜 오테트가 파티에 왔다. 그녀는 무도장 위에 있는 발코니로 갔다. 그녀는 지그프리를 찾고 싶었다. 오테트는 지그프리트가 오딜과 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멈춰섰다. 그녀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지그프리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굽혔다. 그는 오딜을 보았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오, 내 신부가 되어 주겠소?”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

**p. 72-73** 오테트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발코니에서 뛰어 나갔다. 지그프리트는 그 움직임에 위를 보았다. 그는 오테트를 알아보았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가면을 벗어 보시오.” 그는 명령했다. 오딜은 지시에 따랐다. 지그프리트는 자신의 심수를 알아차렸다. 그는 기분이 끔찍했다. 그는 오테트를 뒤쫓았다. 오테트는 호수로 뛰어갔다. 그녀는 다른 소녀들과 합류했다. 지그프리트는 그녀를 거기에서 발견했다. “오테트, 난 속은 거요! 폰 로스바르트가 자기 딸을 변장 시켰소, 난 그녀가 당신인 줄 알았소.”

**p. 74-75** 오테트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그프ρί트를 용서했다. 갑자기, 다른 아가씨들이 백조로 변했다. 폰 로스바르트가 거기에 있었다! 그의 딸 오딜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 모습으로 있었다. 그들은 반은 사람, 반은 새였다. 폰 로스바르트가 말했다. “왕자님은 오딜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소, 왕자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절대로 안 돼!” 지그프리트가 소리쳤다. 그는 검을 뽑았다. 지그프리트와 폰 로스바르트는 싸웠다. 지그프리트는 이길 수 없었다. 그 마법사는 강력했다.

**p. 76-77** 지그프리트는 오테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오딜과 결혼하지 않을 거요.” 그가 말했다. “난 차라리 당신과 죽겠소.” 오테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들은 호수로 뛰어 들었다. 그들은 수영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키스를 했다. 그들은 물 밑으로 가라앉았고 물에 빠져 죽었다. 마법이 풀렸다. 다른 백조들이 다시 여인들로 변했다. 그들은 슬펐지만 화가 났다. 그들은 폰 로스바르트와 오딜 주위로 모였다. 그들은 소리치고 밀었다. 폰 로스바르트는 반격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많은 여인들을 백조들로 바꿔 놓았었다.

**p. 78-79** 로스바르트의 사악함이 패배를 불렀다. 여인들은 그와 그의 딸을 붙잡았다. 그들은 폰 로스바르트와 오딜을 물 속에서 잡고 있었다. 그들 둘 다 물에 빠져 죽었다. 싸움은 끝났다. 갑자기 여인들 중 한 명이 손으로 가리켰다. “봐요!” 그녀가 소리쳤다. 지그프리트와 오테트의 영혼이 보였다. 그들은 호수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천국으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젊은 여인들에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지그프리트와 오테트는 마침내 함께였다.